



스튜어드쉽코드와 주주권행사의 원칙

The Disciplined Long-Term Investor

메리츠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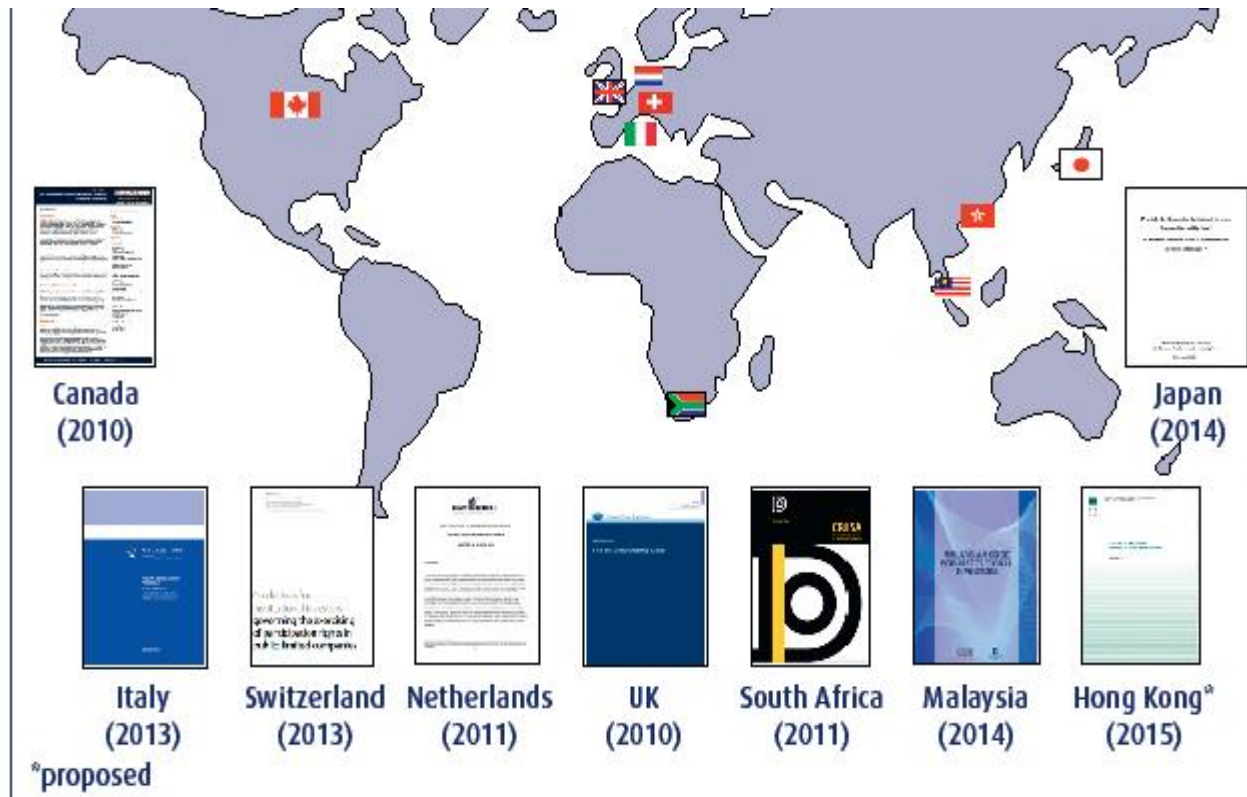
2020.01.30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순위

순위	2016년	2018년
1위	호주	호주
2위	싱가폴	홍콩
3위	홍콩	싱가폴
4위	일본	말레이시아
5위	대만	대만
6위	태국	태국
7위	말레이시아	인도
8위	인도	일본
9위	한국	한국
10위	중국	중국
11위	필리핀	필리핀
12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Source: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단순 주식보유에 한정하지 않고,
-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공식 시행



Sourc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 메리츠자산운용은 2017년 11월 국내 자산운용사 중 3번째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책임이행 정책 마련 공개 • 투자회사의 기업가치 주기적 점검 • 의결권 정책, 행사내역, 결정사유 공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산운용사	
2018년	2019년
20	42

The screenshot shows the Meritz Asset Management website with a navigation menu: MERITZ 메리츠자산운용, 회사소개, 상품정보, 투자정보, 펀드가입.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and includes a list of related documents: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이해상충 방지정책
-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 한국형 스투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공식 시행
 - 기본 7개 원칙
 - 2017년 6월 해설서 발간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도입 시작

7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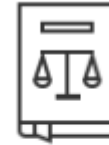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내부지침



의결권 정책
및 행사내역 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당사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7대 원칙

1.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
3.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meritzam.com 하단의 스투어드십코드 내용을 참조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부기준에 의거,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필터링

외부 분석기관의
의안분석 보고서 검
토

팀 의사결정

-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

Friendly Approach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 서신, IR미팅 등을 통한 주주 의견 전달

Activist

- 경영권 위협
- 소송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ESG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효과적인 수단**

자산운용사, 주총 반대 의결권 행사 '7%' 불과

ⓒ 고은빛 기자 | clare0127@seoulfn.com | Ⓞ 승인 2015.07.08 17:56 | 💬 댓글 0

국내에선 메리츠자산운용이 21.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기업지배구조원 등으로부터 외부자문을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SK C&C 정관 변경 및 사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올해 주총서 'NO' 외친 기관투자자 2.2%...

기사입력: 2016-06-07 12:33 | 수정: 2016-06-08 10:19

반대 의안 중 399건 중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의안이 38.1%로 적극적이었다. 가장 반대율이 높은 기관투자자는 메리츠자산운용(15.2%)이었다. 이어 JP모건(12.9%), 트러스톤운용(11.1%), 슈로더운용(10.8%), 라자드코리아(10.2%) 순으로 나타났다.

'거수기' 기관투자자가... 안건 반대 2.8% 그쳐

신민기기자 | 입력 2017-07-06 03:00 | 수정 2017-07-06 03:00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삼성자산운용(15.9%)과 메리츠자산운용(13.3%), 트러스톤자산운용(10.7%) 등의 반대율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주총의안 분석에 대

2015년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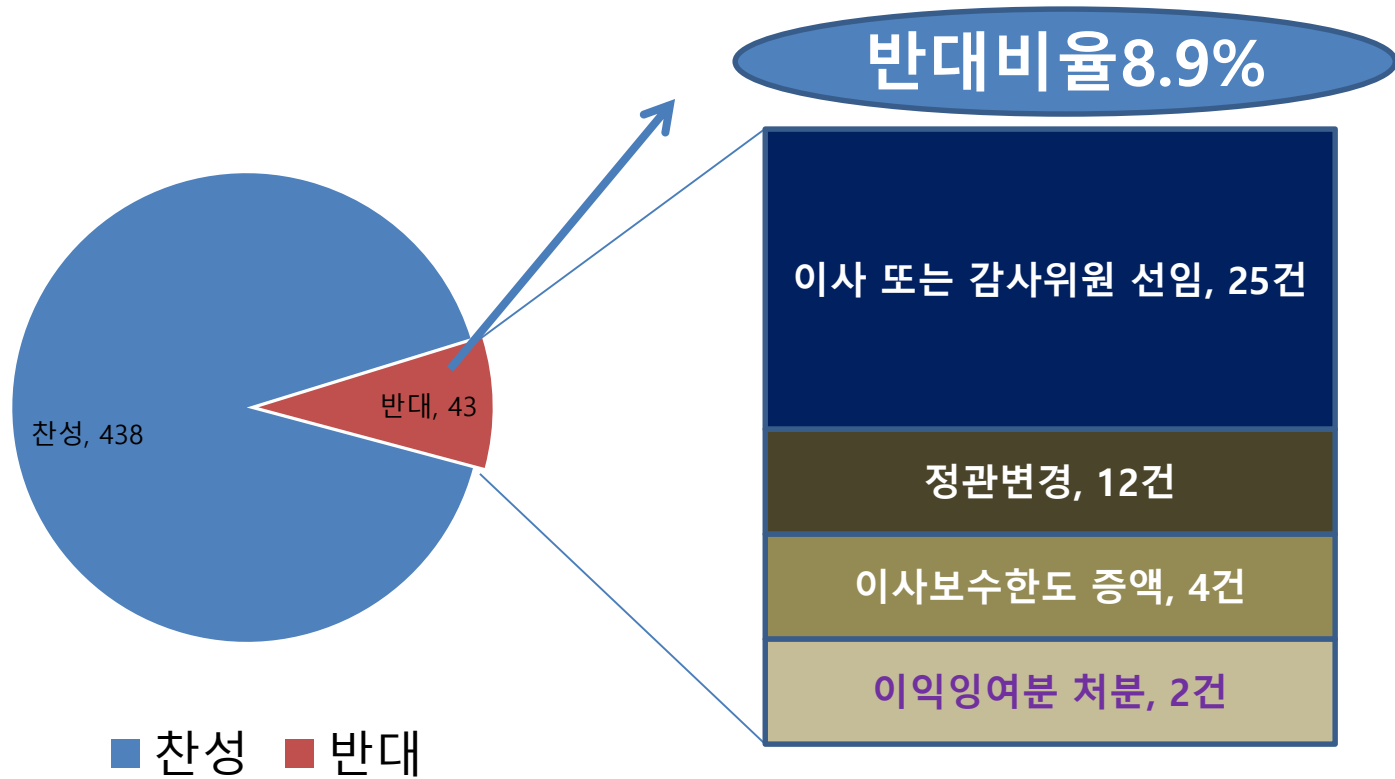
2016년

15.2%

2017년

13.3%

2018년 메리츠의 의결권 행사 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 혹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행위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
 - 기업은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E

Environment 환경

기후변화
생태계 보존
에너지효율
폐기물 관리

S

Sociality 사회

인권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관계
고용, 안전

G

Governance 지배구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임원 보상체계
비리, 부패
주주권리

Good ESG = 초과성과 ?

ESG vs. 재무적 성과

Good ESG vs. Bad ESG

-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의 전세계 475개의 기관투자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ESG 전략이 수익률을 상당히 개선시켰다"고 응답한 비율이 **68%**
- 2,200여개의 학술논문에서 "ESG가 우수한 기업이 재무적 성과도 우수한가?"에 대해 분석, 긍정적 결론은 **52%**, 부정적 결론은 **4%**
- Morgan Stanley의 지속가능투자연구소가 7년간 1만개의 뮤추얼 펀드와 2,800개의 개별 위탁운영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 투자의 성과는 전통적 투자의 성과와 비슷하거나 종종 초과
-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 이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낮은 성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비해 연환산 **4.8%p** 초과 성과 달성

• 폭스바겐(VW) 디젤게이트



- 배기장치의 조작으로 차량 성능테스트에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게끔 속임
- 실제 도로상의 배기가스는 **미국 환경표준 규정의 30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
- 실제 성능을 숨기고 판매한 차량은 유럽, 미주 합산 **약 1,100만대**

Volkswagen AG ▲ 143.50 +0.50 (+0.35%)



164억유로(21조원) 비용 발생
브랜드 훼손
시가총액 약 80조원 증발

감사합니다 !

meritz
Asset Management